

한일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검토*

권 병욱**

(e-mail:kwon-b@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선행연구의 검토
 3. 일본농촌의 사회적 자본
 4. 한국농촌의 사회적 자본
 5.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 농촌은 개방화의 물결이 밀어 치면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청년층의 이농현상과 고령화의 진행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그 결과 농촌생산활동은 노인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고 생산 활동 둔화와 생산성 저하에 따라 농촌사회의 급격한 해체와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마을에 대한 충성심과 일체감, 상호부조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합리성을 중시하며 경쟁과 대립이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로부터 유래하는 사회관계와 그들의 습속에 내재하는 관계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합리성에 기초하는 개인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부조나 신뢰를 기초로 하는 관계회복이 마을공동체의 지속성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경제적 측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AM2007).

**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전임연구교수

면 위주로 접근되던 마을에 대한 논의를 경제외적인 측면을 통하여 마을의 유지, 지속을 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농촌마을에서 다양하게 내재(內在)하는 상호부조, 신뢰, 협동, 의무, 호수성 등의 사회적 자본의 존재를 살펴보고 그를 유인하는 메카니즘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탐구가 경쟁과 대립에 의해 초래된 공동체의 해체를 저지하고 건전한 마을공동체의 건설에 유효한 지표를 제시한다는 확신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선행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 이 작업은 한·일 농촌지역에 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고찰하는데 유익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일본에서 실시, 검토된 농촌마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동향과 사례지역으로서 시가현 후루바시구(滋賀県 古橋区)의 사회적 자본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조사지 B마을의 개요와 다양한 조직 그리고 그 조직들의 조직목적과 운영, 그들 조직을 통하여 발현하는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존재하며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본다. 5장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2. 이론의 검토

사회적 자본은 부르뒤(P. Bourdieu)와 콜만(J. Coleman), 퍼트남(Putnam)등에 의해서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최근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왕성하게 논의되는 개념이다. 로널드 도어(Ronald Dore 1973)는 신뢰, 상호 의무감과 같은 도덕적 요소에 기초한 일본 니시카키시의 직물산업의 네트워크조직을 연구하고 이러한 상호관계가 장기적인 결혼과 같은 관계적 거래를 형성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로렌스(Rorenz 1988)는 프랑스 남부 리용 주변의 중규모 정밀 기계메이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하청관계에 주목하고, 장기의 협력관계를 가능케 하는 요인을 도덕적 계약, 충성, 상호신뢰에서 찾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이주자들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이반 라이트(I. Light)는 아시아계 이주자들은 모국의 전통으로서 순환신용제도(Rotating Credit Association: 계)가 초래하는 물질적 결과를 분석하고 이 순환신용제도의 지속성은 신뢰, 정직, 집단 연대와 같은 사회적 관계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한다고 주장한다.

콜만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현대사회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쉽게 발견된다. 전통사회와 같은 폐쇄적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범위와 안정적인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구성원간의 다양한 사회적 채무 관계가 이행되기 때문(Coleman 1988, 1993)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게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빈번한 교류가 발생하며 구성원 상호간에 가능한 한 많은 사회적인 빚(credit)을 지고 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사회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퍼트남(Putnam, 2000)은 미국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사람들의 공간이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이동이 잦은 경우 지역 내의 연대의식이 약화되며 이웃과의 관계나 주민집단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동이 빈번한 사람의 경우 지역사회와 갖는 유대가 약하며 범죄율이 높고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일수록 강하고 동질적인 사회에서 이질화가 강한 사회로 전이되면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대도시화에 따른 교외거주의 증가로 개인화가 고착되면서 사회적 연계를 갖는 기회의 감소, 지역사회에 대한 공간적 동질화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로렌스는 Heart의 가나 인-포말 경제의 조사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사회가 붕괴하고 있으며 근대적인 조직도 형성될 수 없을 듯 한 사회에서 지인과의 인연을 이용한 부드러운 조직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Lorenz 1988). 이처럼 친족관계나 계약관계에도 없는 인연을 지탱하는 것을 신뢰라고 논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안에서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발생하는 상호의무나 신뢰, 충실한 약속이행, 호수성(reciprocity), 사회적 규범에 근거하여 조직 혹은 공동체내에서 상호협동이나 상호부조를 유인해 내는 것이다.

이상의 제 논의를 기초로 할 때 사회적 자본은 상호부조, 상호협동, 호수성, 신뢰, 정직, 규범등을 포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역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표출되어진다.

Grootaert와 Narayan, Jones and Woolcock(2003)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 교량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로 분류한다.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가족이나 이웃, 친밀한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며,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아무런 공통분모를 갖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느슨한 관계에 존재한다고 한다. 따라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관계의 친밀도에 근거하며,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수평적 관계에 따른 선택성에 기초한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관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동태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을 검토할 때 분석 대상에 따라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척, 친밀한 이웃과 친구, 마을,

직장에 따라 표출되어지는 사회적 자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3. 일본농촌 사회적 자본의 연구동향

3-1. 연구의 배경과 동향

일본 농촌은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농촌사회의 축소와 도시화에 따른 혼주화의 진행에 의해 크게 변화해 왔다. 특히 출생율의 저하에 따른 소자화 고령화가 급하게 전개되고 있어 농업생산활동과 집락(集落)의 공동생활에서 활력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수산성은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중요해 지면서 전통이나 관습의 재생산을 피하고 지역적 특성의 재편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집단내부 혹은 집단간의 협동을 촉진하는 공통의 규범, 가치관, 이해를 수반하는 네트워크로 정의될 때, 사회적 자본은 농촌의 어메니티 실현에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내각부 국민 생활국(2002)은 일본의 농촌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보고하였다. 「풍부한 인간관계와 시민활동의 호순환을 추구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사회적 자본의 배양과 시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타자를 높여주는 관계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사회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도시부보다 지방부에서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부서는 지역경제, 지역사회, 생애학습, 범죄방지, 시민활동등의 분야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2005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지역재생법에 기초한 지역재생 기본 방침에 지역재생을 위한 인재양성, 인재네트워크조성의 촉진 가운데 지역고유의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할 것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 연구의 경향은 2007년 2월에 관계부성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원이 책정되고, 이어서 그 시책 메뉴를 체계화한 지역재생 종합 프로그램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재생·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연계 재생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에는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의 참가하고 협동하여 지역의 발전이나 당면한 과제해결에 대응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즉 각 기관과 공공단체의 충실한 연계구축과 그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적 틀을 정비하고 이러한 법적 틀의 정비에 각 성이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성도 농촌에 있어서 전통적인 집락기능의 저하와 사회적 자본의 연구동향에 따라 2006년 12월에 농촌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농촌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현상이나 정책적 의의등을 검토하였다. 또 2007년 4월 4일에 수상관저서 개최된 식료·농업 농촌정책 추진본부에서 21세기 신농정 2007을 결정하고, 농산어촌의 활성화가운데 농·산·어촌에 있어서 풍부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계의 유지·재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기법을 검토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제 정책과의 관련 하에서 지방공공단체 차원에서의 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시가현은 현 농정의 중기 플랜인 시가의 농업·수산 신전략 플랜에서 농촌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향상을 중점전략에 위치시키고 있다. 또 홋카이도(北海道)에서는 2005년 아카데미 정책연구 “사회적 자본의 양성과 지방력의 향상-신뢰의 인연으로 지탱되는 북해도-”에서 사회적 자본을 지역 스스로가 과제를 해결해 가는 지역력의 기반이 된다고 정의하고 사회적 자본의 연구에 기초하여 지역력 향상을 지향하는 모델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2. 시가현 후르바시구((滋賀県古橋区)의 사회적 자본1)

농림수산성 농촌사회자본 연구회는, 농촌이란 농업집락으로 구성되고 지역농업자원의 유지관리 및 농업생산 면에서의 상호보완, 생활면에서의 상호부조등 집락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2007, 8), 농촌집락 특유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주목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존속하는 주체로서 자치조직을 시야에 두고 집락의 주체로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제사 행사등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연적인 결합이 강한 안정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자치조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적인 자원과 토지, 공간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지역의 지혜가 축적되어 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전 농업과의 관련 속에서 하천으로부터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관계 기술이 발달하고, 모심기, 병충해 방제등 공동활동이 마을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농촌사회에 계승되고 있는 규범을 준수하는 기풍, 농촌사회에 갖추어진 합의를 형성하는

1) 본 조사의 내용은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 (2007) 農村社会的資本研究会まとめ参考資料、豊かな人間関係と社会的つながりの維持、再生に向けて에 기초하여 정리된 것임.

힘, 공식·비공식을 막론한 다양한 조직들과 기능의 집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²⁾

한편 농촌사회를 유지·존속시키는 힘을 지지하는 요소는 농촌의 지역자원과 지역사회의 공동활동과의 구체적이고 밀접한 관련성, 농촌사회의 높은 정주성,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전승의 역할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의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정주성이 높은 사회로서 역사, 전통, 안정, 보수라는 특성을 유지하며, 둘째 지역농업자원의 유지관리기능, 농업생산 면에서의 상호보완기능, 생활 면에서의 상호부조기능이 발휘되고 있고, 셋째 농촌의 생활 가운데 생산된 경험이나 지혜등의 전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범의 준수와 합의 형성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2007: 11)

그러나 고도경제성장을 계기로 농업의 근대화가 진행하면서 농업구조도 크게 변화하였다. 농촌인구의 도시유출이 급격히 진행된 결과 농업취로인구가 감소하고 농촌지역의 혼주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비농가가 농촌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농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³⁾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농촌 사회적 자본연구회는 농촌에 있어서의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역할 수행과 사회적 자본의 개념 적용성을 위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야마카타현(山形県), 히로시마현(広島県), 시가현(滋賀県)이며 본 연구는 시가현 후르바시구(区)의 사례에 기초한 것이다.

농림수산성 농촌사회자본 연구회의 조사지 古橋区는 다양한 역사, 종교적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옛날부터 사원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온 지역이다. 이러한 문화유산 가운데 신사불각의 관리나 유지를 담당한 구세와(宮世話役)역이라는 지위를 위시로 옛날의 관습에 따른 다양한 역할과 행사가 집락의 단결에 기여하고 있다. 사원의 유지나 관리를 목적으로 한 공동작업이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에도 마을의 자치조직 외에 20여개의 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마을의 청결을 유지하고 미화를 꾀하는데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주민의사를 반영한 집락활성화 구상과 정비, 역사와 종교문화유산을 결합한 지역 가꾸기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주변에 산재하는 불상이나 불전등의 문화재도 지역민에

2) 농촌공동체의 기본단위를 농업집락으로 파악하며 행정의 말단조직으로서 연락이나 의견취합의 기능, 상호부조를 통한 일종의 사회보장기능, 방재조직등의 자경단 기능, 제사의 기본단위로서의 기능은 농촌사회의 힘이라고 한다(2007, p 10)

3) 농가인구의 예측은 2000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약 4%감소하여 약 800만 명이 되고 고령화율도 지속적인상승경향에 의해 2020년에는 65%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가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혼주화율은 2020년에 약 9%로 전국의 수준으로 진행하며 중산간지역에서 7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해서 소중히 보관되고 있으며 이 문화제는 소화 38년에 국가보조로 건설한 고고우각(己高閣)와 평성원년에 주민들 독자적으로 건설한 요시로각(世代閣)에 보존하고 있다. 지역의 전통행사로는 오고나이(おこない)、노가미 마즈리(野神祭り)를 실시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하여 수백 년의 전통을 계승·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의 비합리성이나 비현실성은 역기능적으로 젊은 층의 유출이나 결혼문제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관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의해서 민주적인 자치활동이 곤란한 면도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여 의식의 변화가 기대되고 융통성이 있는 공동체 운용이 필요해 지고 있는 것이다.

시가현의 농촌은 집락이나 지역내의 구성원들간의 결합이 강하며 신뢰를 토대로 하는 상호부조, 규범에 기초하는 공동작업이나 합의 형성이 강하게 엮여 있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주민조직이나 관습, 규범이 오늘날까지 유지되며 그 장점이 마을활성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지역의 전통적 사회적 자본이 지역내에서 재생산, 소비되면서 농촌마을 활성화의 충분조건은 아니고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량형 사회적 자본보다는 내부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공통기반을 축적하지 않은 채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가족이나 이웃, 친밀한 관계에서 유지되는 사회적 자본이 현저하게 우세하다는 것이다. 또 수전농업을 공동의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유인하고 있다. 즉 기왕에 존재하는 마을내의 풍부한 사회적 관계가 마을의 공동행사나 공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차세대에 계승되며 타 지역으로 부터의 전입자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습속과 양립을 꾀하며 사회적 자본의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 1992년까지 명문화된 마을규칙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마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기존의 마을의 관례에 의존해 왔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례나 습속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배양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4.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적 자본⁴⁾

4) 본 연구의 조사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0월에 걸쳐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와 마을내에 보관되어 있는 다양한 마을회에 관한 문서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4-1. 마을의 개요

우리나라 조사지는 고려시대 야은 길재(吉在: 해평길씨)의 낙향을 계기로 형성된 B마을이며, 해평길씨는 길재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조선조 사직과의 관계를 미루어 조선조에 상당한 명문가를 이루었으며 B마을에서 그 위세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B마을의 인구가 2008년 현재 132세대에 2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의 75%가 그 후손들로 전형적인 집성촌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66년도 B마을의 인구는 1,048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76년도에는 946명이 거주하여 상위 행정단위인 B면의 12개 마을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마을의 인구는 7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도 현재의 인구는 1966년과 비교할 때 겨우 26%를 상회하고 있어 마을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자연감소와 더불어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경험하듯이 산업사회에 편입되면서 젊은 층의 도시유출과 그에 따른 동반이탈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B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의 건설과 그에 따른 통행자의 감소로 인한 B면내의 경제의 위축이나 마을내의 생산기반인 협소한 농지로 인해 생계를 찾아 전출인구가 증가한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농촌마을의 노동력의 구조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 하였고 노인 독거세대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문제, 사회안전망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B마을 전체주민의 약46%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며 19세 이하의 학생 연령층 10%를 합하면 56%정도가 노동력으로 계상하기 어려운 연령층임을 감안 할 때 마을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유추할 수 있다.

마을의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마을의 대소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기제를 고안하여 삶을 유지한다. 다양한 기제들 가운데 마을회는 전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 동사를 논의하고 갈무리를 짓는 마을운영의 최고의결기구이다.⁵⁾ 마을의 자치를 달성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식조직이며 그 하부에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그리고 개발위원회가 동사(洞事)에 협력하는 것이다. 한편, 집성촌으로서의 특성에 맞게

5)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대동회 혹은 동회라고 하거나 마을회, 마을총회라고 부른다. 마을주민들이 하나로 모여 더불어 논하고 다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들이다. 마을회의 정점에는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임원진이 있다. 임원은 마을 내 다섯 개 반의 반장들과 반별 개발위원(5명), 새마을 지도자(1명), 부녀회장(1명), 운영위원(3명), 감사(2명), 노인회장(1명)등 2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장은 상급기관인 면사무소나 군청의 행정의 대행을 담당하며 전달사항의 고지, 열람, 홍보 및 계도를 담당하며 마을회의 개최를 주도한다.

문중의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해평길씨 종친회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조성되는 송계(松契)나 친목계, 동창회, 애경사를 위하여 조직된 상계가 대표적인 기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마을회를 비롯한 각 조직의 그 유래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B마을은 이들 조직들간의 협력을 근간으로 마을의 역사를 지속해 왔으며 상호 공존을 도모해 온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직들과 노동력의 동원시스템을 중심으로 B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고찰할 것이다.

4-2 마을조직과 사회적 자본

1) 마을회

B 마을은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하여 성원을 이루고 동사를 논의하는 마을회와 송계를 관장하는 마을회로 나누어 이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자의 책임자를 이장이라고 부르는 반면, 후자를 대표하는 인물을 계장이라고 호명한다. 전자는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마을총회를 통하여 그 운영이 결정되고 한 해 동안 진행된 마을 사업의 평가보고, 향후 사업의 내용을 협의·의결하며 때로는 마을 이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한다.⁶⁾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전 주민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규정을 위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제재는 마을내에서의 공동작업이나 협동생산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반사실의 경중에 따라 마을 내에서 위반자를 추방하기도 한다. 마을의 이장은 마을의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향도하는 지휘자이다. 마을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마을의 향방을 결정하는 마을의 실질적 지도자이자 책임자이다. 상급기관인 면사무소나 군청의 행정을 대행하며 전달사항의 고지, 열람, 홍보 및 주민 계도를 담당하고 영농회장을 겸하여 농협협동조합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다.⁷⁾ 특히 이장은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청결유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인력을 동원하고 마을을 유지하며 존속을 대표하는데 이러한 이장의 역할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에 현저하였다. 새마을 사업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치로 마을 산 푸르게 가꾸기, 마을 진입로 확장, 마을 앞 소하천 뚝 보수 및 관리, 마을 청소 및 하수구 파내기, 공동우물 및 공동빨래터 만들기 등 마을의 구조개선에 역점을 둔 범국민 생활환경개선사업이다. B마을도 면사무소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농로 확장, 지붕 개량, 마을

6) 마을의 임원은 반별 개발위원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운영회원, 감사, 노인회장으로 구성된다.

7) 농협업무는 대부분 농협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조합원 관리, 농협주도의 사업신청 및 영농자재 구입을 담당하고 자재대금 등을 대리 수납하여 농협에 제출하는 것이다.

진입로 확장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마을회의 감독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인 성격이 아니라 강제적인 성격이 강했다. 한편, 마을회는 15년 전부터 음력정월 14일에 망월 불놀이 탐제를 추진하고 있다. 탐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의 전반을 관장하며 부녀회를 중심으로 공동의 음식을 장만하고 서로 나누며 교류의 장을 형성한다.

2) 송계

송계(松契)는 마을 주민들 공동으로 산을 구입하여 송계산으로 정하고 그 산으로부터 화목과 목재를 확보해 왔다. 다시 말하면 송계는 송계산의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조직되고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하며 일정한 원칙에 준하여 회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제한적 조직이다. 이 송계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기구역시 마을회라고 칭하며 송계의 운영과 관리는 1959년에 제정된 마을회 정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송계는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한 마을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송계를 통한 재산의 증식을 꾀하며 그 생산적인 활용을 도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전승되어 오는 재산 및 독지가로부터 기증된 재산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계약하여 취득·관리하는 재산 그리고 기타마을 소유의 재산을 포괄하여 마을 재산이라고 하며 이것이 송계의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다.

마을회에 가입한 주민은 공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공유할 권리를 가지고 재산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부담도 함께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다. 마을회의 가입은 희망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며 그 회원은 일정한 원칙에 준하여 회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된다. 마을의 신규 진입자나 전출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신입자는 개발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전출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부받고 제명되거나 기존의 자격을 유지 존속토록 조치한다. 이러한 마을회는 마을재산의 보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두며, 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사안을 심의하고 마을재산의 보존및 관리방법을 의결한다⁸⁾. 계장은 송계를 대표하고 송계업무 전반사항을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계장은 계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에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한편, 총무는 계장, 부계장을 보좌하며 회의 운영에 대한 방침, 예산수립, 재정상황등을 총회에 제출·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효율적인 관

8) 임원회는 계장(1인), 부계장(2인), 총무(1인), 감사(2인), 고문(3인)으로 구성하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 연임제로 한다.

리를 추구하고 있다.

총회는 마을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의 의결은 물론,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을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일 때에는 재산 관리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대리 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러한 송계의 관행은 다양한 연료의 보급과 생산활동의 변용에 따라 현저히 와해되고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송계의 규정을 준수하고 구성원간의 협력을 유인하며 재생산되고 있다.

3) 문중조직

B 마을의 대표적인 문중조직은 해평길씨 종친회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해평길씨는 B마을에서 가장 많은 성씨를 형성하며 종친회를 구성하고 문중 규칙인 종약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상호부조와 협력을 조직하는 것은 문중행사나 문중 내에서 발생하는 애경사에서 특히 활발하다. 문중 전체의 행사로는 길재선조를 모시는 청풍사의 유림제에서 잘 나타난다. 매년 9월 15일에 거행되는 유림제는 문중조직이 동원되어 실시하는데 이때는 B마을뿐 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문중들까지 협력하고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임원은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문중총회에서 순번제로 추천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유사(都有司)와 당재(堂財)를 관리하는 유사2인(상임유사, 총무유사), 15인의 상무위원, 지방유사 약간 명과 감사와 고문이 임원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도유사는 종약업무를 총괄하고 상임유사는 종약업무를 집행하며 하급유사들을 지휘·감독한다. 총무유사는 문중 자산의 관리 그리고 시향등에 소요된 경비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해평길씨는 유림제를 치르기 전 음력 9월 초하루에 문중 총회를 개최하여 제물의 관리나 사당관리, 문중의 토지 관리상태, 수입현황 등을 논의한다.⁹⁾ 이때부터 문중의 구성원들이 동원되어 제반 문중행사에 관여하고 잡일을 추진하면서 문중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문중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은 70~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문중의 자손 150여 명씩 참여하여 대소사에 협력하며 문중의 권위를 공유하고 자신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문중간의 애경사에 조력하는 상호부조의 관행역시 강하게 작용하였고 이러한 관행들을 통하여 길재선생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마을내의 삶을 원활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9) 문중총회나 시급한 사안에 대한 연락은 경통(敬通)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나 다양한 통신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최근에는 전화로 전달된다.

최근 들어 문중의 가치나 씨족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문중간의 관계 역시 약화되고 문중행사의 주도는 마을 내에 거주하는 일가들에게 일종의 관습으로서 유지되고 있다.

4) 노동조직

B 마을의 전통적인 노동조직으로 두레와 품앗이가 있다. 이 조직이 마을의 노동력 동원에 이용되며 상호부조를 이루고 협력을 유인하였다. B마을에서 두레는 주로 모내기와 제초작업을 하는 농번기에 조직된다. 모내기 두레는 대개가 경작지를 다량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마을의 두레패에게 모내기 낱짜를 연락하면 영좌나 상좌가 두레를 조직하여 순서대로 모를 심고 그 샅을 받아 분배하였다. B마을은 모를 심은 논외의 제초작업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모를 심은 지 30일 정도 지나 초벌매기를 하고 7일 정도가 지나 두벌매기, 다시 15~20일 후에 논외의 물을 빼고 세벌매기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제초작업에 특히 두레패가 동원되어 노동력을 부조하는 관행을 유지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다양한 제초제가 보급되면서 이러한 관행은 사라지고 현재는 이야기로만 전승되고 있다.

한편, 품앗이는 우리나라 농촌 마을의 노동력을 보조하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는 노동조직이다. 비교적 소수의 친밀한 사이에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며 상부상조하는 빈약한 소농 경작에서 유행하는 본질적인 협력 관계이다. (배원달, 이병구 1972.13) 따라서 품앗이의 결합과 해체는 매우 자유로우며 호수 원리에 기초한 행위의 종결과 더불어 합의 내용이 소멸되는 일시적 노동 교환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성과 현금, 현물이 아닌 자신의 노동력을 맞교환 하는 이점에 의해 가계(家計)를 우려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시행되었는데, 품앗이는 노동의 교환을 통하여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협업 내지 분업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품앗이의 적용범위는 모내기, 김매기 등의 답작 노동은 물론 관개시설로써 보(溲)의 정비, 논둑 제방 쌓기, 가옥의 수리 등에도 적용되었다. 모내기의 품을 보의 정비나 가옥의 수리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모내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품을 여자의 품으로 앗기도 하며, 남자의 모내기 품을 여자의 전작노동(밭매기)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밭일이 아니라 모심기나 벼베기, 벼뭍기 등에서도 빈번히 활용해 왔다는 점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퇴비를 할 때도 주로 품앗이를 통하여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품앗이는 주로 5~6명이 한패를 이루어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품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거나 상호 중복적으로 품을 필요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

고 한다. 여기서는 품앗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입수한 ○○○씨의 농사일기를 통하여 품앗이가 어떻게 이루어지 지는가를 살펴 볼 수가 있다. 아래 <표1>은 ○○○씨의 품앗이를 기록한 것이다. 표를 살펴보면 ○○○씨 덕의 대품을 한 마을 주민들의 면면이 확인되고 있다.

<표1> ○○○씨 1985년도 품앗이記

날 짜	품 활용자	노동 분류	품앗이 대상	비고
5월 30일	□□□	모심기	대 품(代品)	1거(去)
5월 31일	◇◇◇	모심기	대 품	2거(去)
6월 2일	□□□	모심기	대 품	1거(去)
6월 4일	○○○	모심기	□ 2,△2,▲2,◇2	각 내외8래(來)
6월 5일	△△△	모심기	대품(○2)	2거(去)
6월 6일	○○○	모심기	□ 2,△1,◇1,▲1	5래(來)
6월 8일	◇◇◇	모심기	대품(○ 1)	1거(去)
7월 5일	▲▲▲	모심기	대품(○ 1)	1거(去)
7월 8일	▲▲▲	모심기	대품(○ 2)	2거(去)
7월 14일	□□□	변소수리	대 품	1거(去)
10월 3일	△△△	벼묵기	대 품	1거(去)
10월 15일	□□□	벼묵기	대품(○ 1)	1거(去)

자료:○○○씨 농사일기(1985~1986년분)에서

□ □ □ 씨의 경우 내외가 합하여 4회를 ○○○씨의 모심기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씨의 경우도 내외가 합하여 3회, ▲▲▲씨의 경우 역시 내외 합하여 3회, ◇◇◇씨 내외도 합하여 3회에 걸쳐 ○○○씨의 모심기에 노동력(품)으로 활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씨 가족은 모심기에서 위의 마을 주민으로부터 총 13회, 다시 말하면 13명분의 노동력을 차용하여 활용한 것이다. 반면에 ○○○씨 가족은 부인과 본인을 합하여 13회 즉 13명분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거(去)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 씨에게 4회 출력하였으며(거去), ◇◇◇, △△△, ▲▲▲씨에게는 각각 3회씩(각 3명분)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위의 품앗이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는 쪽과 품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대칭성을 전제로 하여 품앗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품앗이記에서는 거(去)와 래(來)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는 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의 현장으로 간다는 의미이며 래(來)는 품을 갚음(報)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찾아온다는 의미로 증답(贈答)의 관계를 나타내는 호수성(互酬性)의 원리

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품앗이를 조직하는 기본원리는 노동력의 질이나 노동의 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친한 사이 혹은 허물없는 사이라는 관계의 속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상호부조, 호수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5) 상계

B마을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들이 존재하며 조직의 구성원들간에 상호협력, 상호부조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 가운데 상여계는 부모의 유고시 상여를 메고 개토를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부조하는 조직이다. 회원이 상을 당하게 되면 회원들은 초염부터 발인까지 참석하여 장례를 거두고 음식을 나누며 망인의 명복을 빌고 상주를 위로한다. 이 때 상주에 대한 위로금으로 계비가 태워지는데 전에는 곡식으로 지불되었지만 최근에는 현금으로 이를 대체한다. 대체로 상여계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만 마을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자식이 타지에 나가 있어도 계원으로 가입하기도 한다. 마을을 떠나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장례기간에는 마을로 돌아와 회원들과 상례를 논의하고 상여를 맨다.

B마을의 상여계는 두 파로 나뉘지만 타성받이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이 일가를 이루어 상주는 추리닝, 운동화, 장갑 같은 것을 제공하고 일가들은 자기 일처럼 노동력을 제공한다. 물론 마을 사람들도 상가가 발생하면 상여계의 가입여부를 떠나 상가에 협력하는 관행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비중이 커지고 회원들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문화도 그 의미나 형태가 급하게 변하고 있다.

6) 새로운 사회적 자본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후복구에 필요한 엄청난 물자수출로 경제호황을 누리기도 물자의 과잉생산으로 경제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과잉생산으로 과생된 자국의 경제 불황을 해소하기 위해 GATT체제를 출범시키고 자유무역을 강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67년 GATT에 가입, 국내산업의 보호와 수출의 길을 트는 수혜국 혜택을 받아왔다. 이후 198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후진국대열에서 벗어나면서 수입개방의 압력을 받고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3)에서 농축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입자유화 협상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UR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각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분야로 한국은 쌀을 포함하여 185개 품목에 대한 수입 자유화에 합의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다양한 농촌정책을 개발하였다. 90년대를 전

후하여 조직된 마을의 다양한 작목반은 이러한 농촌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되었다. 작목반은 군의 기술센터의 지원에 의존하여 축종별 작목반과 통합형 시설 원예작목반으로 나누어진다. 축종별 작목반은 한우 작목반, 육돈 작목반이 있으며, 통합형 시설원예작목반은 배, 포도, 딸기, 수박 등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작목반으로 나뉜다. 이들은 농협의 지원 하에 생산물의 계통출하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되고 이해관계를 상실하면 곧바로 와해되는 조직들이다.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정부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자마자 조직으로부터 탈퇴하여 보조금의 빛만 떠안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의 B마을 주민관계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유통채널을 구축하고 생산물의 출하지에 따른 판매비에 대한 정보, 농산물에 대한 심사의 엄격성, 생산기구의 구매처, 정부의 자금지원, 기술지원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교환을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작물재배나 축산작목에 관한 기술, 정보를 상호 유통시키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5 맺는 말

지난 70년대와 8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마을은 현저하게 쇠퇴하였다. 젊은 인력이 대량으로 도시로 유입되고 농촌의 생산력은 급격히 약화되면서 농촌마을이 유지해 왔던 다양한 사회조직이 와해되고 마을의 전통적인 습속이 약화되었다. 아울러 마을 내에 축적되었던 사회적 자본의 전반적인 손실도 현저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 조성사업등이 대표적인 정책인데 이러한 정부 주도형 마을 사업은 마을의 주민과 마을을 배제하고 마을 내에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시하면서 추진된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마을내의 사회적 자본이 배양될 수 있는 근간을 상실하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B마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B마을의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조직들 가운데 내재되어 마을의 운영 틀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즉 일가(一家), 친척사이로 이루어지는 문중조직, 마을재산의 관리, 보전을 위한 송계, 행정의 말단 기구로서의 마을회 등의 조직 속에서,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양한 원칙을 적용하여 협력을 유인하며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문중의 구성원인 후손들 간의 신뢰와 문중의 규약(종약)의 엄수,

마을회의 회칙 등이 B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규정한다. 특히 문중조직에서 보이는 사회적 자본은 종약에 근거한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을, 그리고 일종의 관습적인 행위로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며 상호부조를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이 점은 송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송계에 대한 가입이 이기적인 욕구에 의한 것인지는 다음 연구로 미루고 이들은 송계를 중심으로 참가와 협동, 상호부조를 도모해 왔다. 이들에 의해서 발휘되는 사회적 자본은 가족이나 친척, 친밀한 이웃이라는 관계의 특성에 기초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구성한다.

관습적인 노동력 동원관행으로서 두레나 품앗이 역시 상호협력과 상호부조를 유인한다. 특히 품앗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역시 단순한 수평적 관계나 노동력의 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이라는 관계의 정도, 교제의 지속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행들도 산업사회의 진행과 다양한 농기구의 보급에 따라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B마을을 유지하는 관습으로 남아 있다. 특이한 것은 다양한 농업생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러한 생산체계에 적절한 새로운 조직들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새롭게 조직되는 작목반의 경우 자발적 조직이 아닌 비자발적 조직으로 명문화된 규정을 통하여 작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내의 사회적 자본은 매우 취약하며 이기적인 연결고리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B마을의 사회적 자본은 문중조직과 친한 사이에 존재하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강하게 작용하며 아무런 공통분모를 갖지 않은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배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농촌의 사회적 자본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의 성격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에서 보이는 문중조직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운용이나 마을의 규칙가운데 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参考文献】

- 金東一(1982), 『農村住民의 삶의 質』, 한국농촌개발연구원
 권병욱(2005), 「신뢰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아시아연구
 배원달, 이남구(1972), 농촌자치와 협동에 관한 일 연구, 안동교대 논문집 Vol 5
 pp 1-33.
 양희수(1967), 『韓國農村의 村落構造』 고려대 출판부

- 이만갑(1981), 『韓國農村社會研究』, 다락원
- 정병걸(1967), 한국의 농업노동에 관한 일 고찰, 경제론집, 6권 2호 서울대학교
- 陸麗君(1996), 「自治組織からみた部落内の協同關係の変容」地域社会学会年報
8集 181-203
- 長谷川昭彦(1981), 「相互扶助慣行と農村自治」『村落社会研究』 17
- (松原治郎, 余田博通(昭和43年)『農村社会学』川島書店
- 農林水産省農村振興局 (2007) 農村社会的資本研究会まとめ参考資料、豊かな人間關係
と社会的つながりの維持、再生に向けて
- Arrow, Kenneth J.(2000), Observation on Social Capital, in P. Dasgupta and I.
Serageldin(ed),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D. C: The World Bank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 _____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ore, Ronald(1983), Goodwill and The Sprit of Market Capitalism, *British Jo
-urnal of Sociology*, vol 34, pp 459-482
-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Free Press
- Grootaert, C, D. Narayan, V. N. Jones, M. Woolcock(2003), Integrated Questio
-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The World Bank
- Geertz, Clifford(1962), The Rotating Credit Association: a middle rung in
developmen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83,
no.4,pp 39-59
- Gouldner, A(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1-179
- Lorenz, Edward H.,(1988), *Neither Friends nor Stranger*: Informal Network of
Subcontracting in French Industry, in Gambetta ed., pp481-510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24
- Portes, Alejandro and Sensenbrenner, Julia (1993), "Embeddedness and Immig-
ration. Note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20 -1350.

Putnam, Robert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Schuster.

Scott, J(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농민의 도덕 경제 (2004), 김동춘역, 아카넷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151-208

要 旨

本研究は韓国と日本の農村地域の社会的資本を視野に入れ、その違いや変容を見出すのである。社会的資本とは非常に新しい概念であるが、その存在は古くから我らの社会に埋め込まれ、人々の様々な行為に影響を及ぼした。伝統的に言えば兩國の社会的資本は農業生産や農村生活に基づいて現された。特に、これは共同体や村などの閉じこまれた社会に見られいろいろな問題の解決や相互扶助を呼び起こしてきた。もちろん村の自治組織やさまざまな住民組織によって成りうる紐帯を通じて強められる。

産業社会の渡来や進行にともない、最近、小子化や高齢化が進み、農村地域の労働力の構造が変わりつつある。昔の農村地域の姿は消えてしまったけれど、まだ農村地域の特徴は残っている。

韓国の場合、伝統的に親戚関係がまだ強く残ってそれがひとつの社会関係に結ばれ、その血縁に基づきながら社会的行為を行うし、互いの共同協役に役立つ。それ以外には親しい関係に基づく仲間同士の労働力のやり取りも重要な社会的資本の一つである。これは主として女性の畑労働に用いられると知られているが、実は稲植えや虫、草かりなどの作業にも利用される。最近では農機械や農薬の普及あるいは新しい農作の展開によって組織される作目班の登場によって新しい社会的資本が創られている。

キーワード： 社会的資本，規範、互酬性、マウル会、松契、プマシ

투 고 : 2009. 2. 28
1차 심사 : 2009. 3. 14
2차 심사 : 2009. 3. 28